

도의회 의장선거 초선의원 가세 '변수'

김기태 · 이용재 · 이장석 의원에 초선 사순문 의원 합세 '4파전'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장 등 10자리 민주당서 썩쓸이 '예고'

오는 10일 예정된 제11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70%가 넘는 초선의원들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뒤늦게 초선의원이 의장선거에 합류해 변수가 될 전망이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를 마감한 결과 재선의 김기태(순천1)의원과 초선의 사순문(장흥), 3선의 이용재(광양), 이장석(영광) 의원 등 4명이 등록했다. (가나다순)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동안 다선 의원들간 3파전 양

상으로 진행됐던 의장선거가 초선 의원이 가세해 선거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는 58명 중 초선이 41명이나 된다. 재선은 12명, 3선 5명이다. 초선의원들이 사실상 의장 선거전에 키를 쥐고 있다.

김기태 의원과 이용재 의원이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이장석 의원이 출격하는 양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뒤늦게 뛰어든 사순문 의원의 득표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차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차 결선 투표가 진행되면 사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휘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 의원은 '8표 정도만 확보하면 의장선거 판도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다른 후보들이 '다선이 돼야 한다'는 경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분권, 의회 민주주의 등 정책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은 오는 5일 간담회를 하고 선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아직 거론됐던 당내 경선은 논란속에 반복되거나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명을 선출하는 부의장 후보는 김학종(장성2, 3선), 박금희(고흥2, 재선), 이민준(나주1, 3선) 의원 등이 각각 등록했다.

이 등록했다.

운영위원회 후보는 서동욱(순천3, 3선), 문행주(화순1, 재선), 기획행정위원장 후보는 김기성(담양2, 초선), 이해자(무안, 재선), 보건복지환경위원장 후보는 전경선(목포5, 초선), 강정희(여수6, 재선), 경제관광문화위원장 후보는 김태균(광양2, 재선), 안전건설소방위원장 후보는 임영수(보성1, 재선), 최무경(여수4, 초선), 농림해양수산위원장 후보는 김용호(강진2, 초선), 김성일(해남1, 재선), 교육위원장 후보는 임용수(함평, 재선), 우승희(영암1, 재선) 의원 등이 각각 등록했다.

이들 모두 민주당이다.

의장 및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 쟁취를 예고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58명 의원 중 54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평화당 2명, 정의당 2명으로 구성됐다.

김성환 기자



이용섭 시장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들겠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4일 오전 광주공원에서 열린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석한 후 관계관과 함께 광주 천 집중호우 시 자동경고방송시설 작동과 천변로 정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현 부지 존치' '이전 해야' 의견 팽팽

시설 유지보수에 수십억 예산

전남대병원 이전과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 '현 위치에 있어야 한다'와 '이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새 병원 건립의 당위성'과 이전 등을 묻는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대상은 병원 구성원·의과

대학 등 대학 동문·지역 사회 구성원 일부이다.

결과 응답자들은 '현 위치 고수'와 '타지역 이전'을 놓고 비슷한 수치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10년 광주 옛 전남도청 부지에 '지혜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문을 연 전남대학교병원은 5년 뒤인 1915년 현 부지로 이전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그동안 양적·

질적으로 고공 성장을 이어가는 등 지역 대표 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협소한 부지로 인해 병원을 찾는 시·도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 등 각종 시설 유지보수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병원 이전설이 급속히 퍼지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부지 무상 제공 등 파격적 제언을 내놓고 있다.

서은홍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고흥 · 장성 · 장흥

**湖 南 新 聞 이
지 역 공 간
미 래 장 조
정 톤 직 편**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onam.com

湖 南 新 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 인 설립	■ 기 장 대 리
■ 양도상승증여	■ 간설면허신청
■ 기 업 진 단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비 계 구조물 해체공사	▶ 석면 해체공사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석면조사

측 량 >> 토 목 설 계 >> 도 시 계 획
토목공사>> 창업상담>>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동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선정

광주 동구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청년 창업허브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시비 등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며 일자리 창출에 힘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진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년창업허브 조성사업'은 창업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 창업공간 8개실을 조성하고 청년 맞춤형 창업 실무교육, 전담매니저 배치 등 지역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서구,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설문조사 92% 찬성

광주 서구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반부패·청렴에 대한 인식·형태 및 지역사회의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

서구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청탁금지법에 찬성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서구청 직원의 9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7% '잘 모르겠다'와 1%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92%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남구, 오늘 청년정책 100인 위원회총회 개최

광주 남구 청년정책 100인 위원회가 5일 총회를 개최한다.

청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전개해 온 상반기 활동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청년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발굴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함이다.

4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2018 상반기 청년정책 100인 위원회 총회'가 열린다.

이날 총회에는 청년정책 100인 위원회에 소속돼 활동 중인 청년위원 110명 가량이 참석하며 2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그동안 참여소통과 고용·청년복지·청년문화·도시재생 분과 등 5개 분과별로 전개해 온 각 분과별 청년정책 제안 발표가 있고 난 뒤 이 제안에 대한 행정기관의 피드백이 이뤄질 계획이다.

북구,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광주 북구가 전국 평생학습도시 메카로써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4일 북구에 따르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2018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3천 5백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은 지역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전국 153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예비심사 등 사업별 심사를 거쳐 최종 13개 도시를 선정했으며, 광주에서는 북구가 유일하다.

북구가 제출한 '직업의 탄생·일상을 잇는 제작소'는 지역지원을 활용한 학습형 일자리 특화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상을 잇는 제작소'는 일상의 아이템을 교육화해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청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총 3개 과정을 운영한다.

광산구립합창단, 11일까지 신규 단원 모집

광주 광산구가 전국 평생학습도시 메카로써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2년 이상 광산구에 주소가 있고 단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주민은 광산구 홈페이지(www.gwangsan.go.kr) '새소식'이나 '고시/공고'란에서 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필요한 서류와 함께 11일 오후 4시까지 구문화예술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설기 오디션과 면접은 18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고 최종심사 결과는 1주일 안에 개별 통보해 준다. 이렇게 선발된 단원은 주 2회 연습을 거쳐 광산구 문화시설로 대외활동을 펼친다.

임형택 기자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노동법 기업컨설팅	▶ 산재업무대리
▶ 급여체계 정비사	▶ 징계(해고)자문
▶ 4대보험 무료대행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 e l : 062)512-0336 H·P : 010-3624-0338